

# 心獨無腧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1</sup> ·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2</sup>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sup>3</sup>  
엄동명<sup>1, 2</sup> · 송지청<sup>3</sup> · 금경수<sup>1, 2, 3\*</sup>

## A Review on Shimdokmusu(心獨無腧)

Eom Dong-myung<sup>1, 2</sup> · Song Ji-chung<sup>3</sup> · Keum Kyung-soo<sup>1, 2, 3\*</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up>3</sup>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Literally Simdokmusu(心獨無腧) means only Heart meridian doesn't have acupuncture points. But in Oriental medical classics such as 『Hwangjenaegyong(黃帝內經)』, Heart meridian has been explained it has acupuncture points. Then, what does it mean?

First, we take a careful look how it is different between Oriental medical classics describing meridian pathway. Next, we focus on Pericardium meridian(PC) because Heart and Pericardium meridian have several similarities in many ways.

With those methods, we try to reveal the meaning of simdokmusu(心獨無腧) as a conclusion.

**Key Words** : Simdokmusu(心獨無腧), Meridians, Heart(心), pericardium(心包)

## I. 序論

인체는 안으로 五藏六府와 밖으로 皮毛肌肉이 經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부 장기의 변화를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외부 자극을 장부로 전달해 주기도 한다. 『素問』 「靈蘭秘典論」에서는 心을 君主之官으로 표현함으로써, 한 나라의 군주와 동일시하여 중요하게 인식하였다<sup>1)</sup>. 이런 생각은 心이 병들면 하루

만에 죽는다거나 心이 병드는 것은 心包가 병드는 것이라는 등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며, 심지어는 手少陰에는 혈자리가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靈樞』 「經脈篇」에는 手少陰心經과 手厥陰心包經에 대한 流走와 病證을 서술하고 있어서 心獨無腧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항상 궁금하였다. 이런 발단에서 먼저 어떤 근거로 心獨無腧를 말하는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手少陰心經과 手厥陰心包經의 流走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에 心經이 流走하는 노선을 『靈樞』 「本輸篇」, 「經脈篇」, 「邪客篇」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靈樞』 내용과 『馬王堆帛書』에서 설명하는 經絡 流走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心과 心包의 관계를 통해 心獨無腧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알아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금경수.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E-mail: kskeum@wku.ac.kr Tel: 063-850-6847.

Fax : 063-842-4328.

접수일(2010년 2월 19일), 수정일(2010년 3월 21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23일)

1) 가노우 요시미즈, 중국의학과 철학. 서울. 驪江出版社. 1984. pp.180-181.

## 1. 心獨無臉에 대한 문제제기

먼저 『靈樞』 「邪客篇」에 나오는 心獨無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帝曰, 手少陰之脈, 獨無臉, 何也. 岐伯曰, 少陰, 心脈也.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臉焉. 黃帝曰, 少陰獨無臉者, 不病乎. 岐伯曰, 其外經病而藏不病, 故獨取其經於掌後銳骨之端, 其餘脈出入屈折, 其行之徐疾, 皆與手少陰心主之脈行也, 故本臉者, 皆因其氣之虛實疾徐以取之, 是謂因衝而瀉, 因衰而補, 如是者, 邪氣得去, 真氣堅固, 是謂因天之序<sup>2)</sup>.

‘少陰獨無臉’의 ‘無臉’은 ‘해당 경락이나 경혈 자체가 없다’는 의미와 ‘해당 경락과 경혈은 있지만 치료할 자리는 없다’는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경락과 경혈 자체가 없는 것인지, 경락과 경혈은 있는데 마땅히 치료할 자리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心이 오장육부의 大主이며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자리로, 기운이 견고하여 사기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머물면 정신이 흩어져서 금새 죽는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심에 경락과 경혈이 존재하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치료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장부 가운데 心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邪氣가 心에 있는 것은 모두 包絡이나 心主手厥陰脈에 있는 것이므로 心包를 다스리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데, 『靈樞』 「經脈篇」에 근거하면 手少陰經과 手厥陰經의 經脈流走가 다르고, 두 經의 是動病, 所生病도 다르므로 「邪客篇」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手少陰心經과 手厥陰心包經의 流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靈樞』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9.

「經脈篇」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馬王堆帛書의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 2. 馬王堆帛書의 기록

足臂十一脈灸經에는 臂少陰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臂少陰(溫), 循筋下兼, 出臍內下兼, 出腋, 奏脇, 其病脇痛, 諸病(此物者), 皆(久)臂少陰(溫).<sup>4)</sup>

또한 陰陽十一脈灸經에는 臂少陰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臂少陰脈, 起于臂兩骨上間, 下骨上痛, 筋之下, (出)臍內陰. (入心中), (是動則病, 心)痛, 益渴欲飲. 此爲臂蹶, 是臂少陰脈主治. 其所產(病, 脇)痛, 爲一病.

그동안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황제내경의 경맥이론에 대한 연구를 요약하면 足臂十一脈灸經은 경근에, 陰陽十一脈灸經은 경맥에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십이경맥이 체표순환노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모두가 靈樞 經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가 하면<sup>5)</sup>, 足臂

3) 마왕퇴백서와 황제내경의 경락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윤중화, 김갑성, 馬王堆 漢墓出土 醫書中 足臂十一脈灸經 및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篇과의 比較 考察, 동국대학교 한의대연구소 논문집, 1992. 1.

김용진, 馬王堆醫書와 黃帝內經에 나타난 經絡學說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5. 9.

이정훈, 윤중화, 足臂十一脈灸經에 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15(1).

이정훈,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에 對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9. 16(2).

박중현, 황제내경과 마왕퇴의서의 경락이론 비교연구, 동서의학, 2002. 27(3).

4) 足臂十一脈灸經의 원문은 동국대학교 한의대연구소 논문집 제 1집에 실린 윤중화, 김갑성의 논문 馬王堆 漢墓出土 醫書中 足臂十一脈灸經 및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篇과의 比較 考察 114쪽을 참고로 하였다. 아래 陰陽十一脈灸經의 원문 또한 같은 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十一脈灸經이 陰陽十一脈灸經으로 변화하고, 陰陽十一脈灸經이 靈樞 經脈으로 변화하였다는 주장은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6)</sup>.

어느 편의 내용이 어디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에 마왕퇴백서와 황제내경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帛書 二經 모두 靈樞 經脈篇에 나오는 手少陰經에 해당하는 유주는 臂少陰脈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手厥陰經에 해당하는 流走는 보이지 않아서 帛書에는 手厥陰經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足臂의 臂泰陰溫과 陰陽의 臂巨陰脈은 명칭은 手太陰이지만 內容面에 있어서는 手厥陰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sup>7)</sup>.

그렇다면 黃帝內經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2. 手少陰心經과 手厥陰心包經의 流走

### 2-1. 靈樞 經脈篇

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 出屬心系, 下膈絡小腸. 其支者, 從心系上挾咽, 繫目系. 其直者, 復從心系却上肺, 下出腋下, 循臑內後廉, 行手太陰心主之後, 下肘內, 循臂內後廉, 抵掌後銳骨之端, 入掌內後廉, 循小指之內, 出其端. 是動則病噎乾, 心痛, 渴而欲飲, 是爲臂厥.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脇痛,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sup>8)</sup>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於胸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 其支者, 循胸出脇, 下腋三寸, 上抵腋下, 循臑內, 行太陰少陰之間, 入肘中, 下臂, 行兩筋之間, 入掌中, 循中指, 出其端. 其支者, 別掌中, 循小指次指, 出其端. 是動則病手心熱, 臂肘攣急, 腋腫, 甚則胸脇支滿, 心中憺憺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 是主脈所生病者, 煩心, 心痛, 掌中熱.<sup>9)</sup>

「經脈篇」에는 십이정경의 유주와 각 경락의 시동병 소생병을 언급하고 있으며, 경락은 순환하는 유주노선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소음경과 수궐음경 또한 유주노선을 비롯하여 시동병, 소생병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경혈 명칭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지 경락이나 경혈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經脈篇」에서는 순환하는 성질의 경맥체계를 설명하였다면 향심성의 경맥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本輸篇」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 2-2. 靈樞 本輸篇

心出於中衝, 中衝, 手中指之端也, 爲井木. 溜於勞宮, 勞宮, 掌中中指本節之內間也, 爲榮. 注於大陵, 大陵, 掌後兩骨之間方下者也, 爲腧. 行於間使, 間使之道, 兩筋之間, 三寸之中也, 有過則至, 無過則止, 爲經. 入於曲澤, 曲澤, 肘內廉下陷者之中也, 屈而得之, 爲合, 手少陰也.<sup>10)</sup>

「本輸篇」에는 사지말단에서 체간으로 흐르는 구심성의 본수 흐름과 각 경의 오수혈 명칭과 위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십이경 모두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11개 경락 뿐이다.

위 내용은 수소음심경의 본수를 언급한 내용이지

1985. p.80.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2.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5) 김용진. 馬王堆醫書와 黃帝內經에 나타난 經絡學說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87. 9. p.85.

6) 이정훈,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에 對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9. 9(2). p. 178.

7) 윤종화, 김갑성. 馬王堆 漢墓出土 醫書中 足臂十一脈灸經 및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篇과의 比較 考察. 동국대학교 한의대연구소 논문집. 1992. 1. p.123.

臂泰陰溫과 臂巨陰脈은 肺에는 不至하고, “之心” “入心中” 하며, 疾病은 “心痛” “心煩而意” “心中滂滂如痛”이라 하였는데 이는 手厥陰의 病證인 “煩心” “心痛” “心中澹澹大動”과 恰似하나 手太陰의 病證인 “肺脹滿膨脹而喘咳”와는 相異하다 하였다.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만 실제로는 수궐음심포경의 본수를 말한 것이다. 甲乙經에서는 ‘心出於中衝’이라 하여 수궐음경의 본수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본수편 내용이 수소음심의 본수가 아니라 수궐음심포의 본수임을 분명히 하는 다른 내용으로 素問 氣穴論의 왕빙 주석을 살펴보다.

心包之井者，中衝也，榮勞宮也，兪多陵也，經間使也，合曲澤也，中衝在手中指之端，去爪甲角，如韭葉陷者中，手心主脈之所出也，刺可入同身寸之一分，留三呼，若灸者，可灸一壯，勞宮在掌中央動脈，手心主脈之所流也，刺可入同身寸之三分，留六呼，若灸者，可灸三壯，大陵在掌後骨兩筋間陷者中，手心主脈之所注也，刺可入同身寸之六分，留七呼，若灸者，可灸三壯，間使在掌後同身寸之三寸，兩筋間陷者中，手心主脈之所行也，刺可入同身寸之六分，留七呼，若灸者，可灸七壯，曲澤在肘內廉下陷者中，屈肘而得之，手心主脈之所入也，刺可入同身寸之三分，留七呼，若灸者，可灸三壯

위 문장은 素問 「氣穴論」의 ‘藏俞五十穴’에 대한 왕빙의 주석이다. 「氣穴論」에 나오는 ‘藏俞五十穴’과 ‘府俞七十二穴’에 대하여 왕빙은 오장육부의 오수혈 명칭, 위치, 침놓는 깊이, 뜸뜨는 횟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도 心의 본수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本輸篇」에는 「經脈篇」에서 설명한 수소음심경에 해당하는 본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氣穴論」의 왕빙주와 아울러 생각해 보면 심포의 오수혈로 심의 오수혈을 대신해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邪客篇」에도 手太陰肺經과 手厥陰心包經의 경맥유주를 설명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내용 또한 「經脈篇」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 2-3. 靈樞 邪客篇

手太陰之脈，出於大指之端，內屈，循白肉際。至本節之後太淵，留以澹，外屈，上於本節下，內屈，與陰諸絡會於魚際，數脈并注，其氣滑利，伏行壅骨之下，外屈，出於寸口而行，上至於肘內廉，入於大筋之下，內屈，上行臑陰，入腋下，內屈，走肺。此順行逆數之屈折也。

心主之脈，出於中指之端，內屈，循中指內廉以上，留於掌中，伏行兩骨之間，外屈，出兩筋之間，骨肉之際，其氣滑利，上二寸，外屈，出行兩筋之間，上至肘內廉，入於小筋之下，留兩骨之會，上入於胸中，內絡於心脈。<sup>11)</sup>

「邪客篇」에는 手太陰肺經과 手厥陰心包經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向心性 경맥유주를 설명하는 것은 「本輸篇」과 비슷하지만, 오수혈 명칭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나 합혈을 지난 부위에서 체간으로 퍼지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은 「本輸篇」과 다르다. 「本輸篇」에 비교한다면 「邪客篇」의 문장은 좀 더 거칠고 자세하지 않은 셈이다.

## II. 考察 및 結論

本輸篇과 經脈篇, 邪客篇 모두 경맥 유주와 관련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本輸篇과 邪客篇에서는 向心性 經脈流走를 설명하고 있으며, 本輸篇의 내용은 邪客篇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자세하다. 經脈篇에서는 遠心性 유주노선을 띠고 있으며, 本輸 내용과는 별도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本輸篇과 邪客篇의 本輸 이론은 足臂十一脈灸經의 向心性 경맥노선과 연관성이 있으며, 經脈篇의 經脈 이론은 陰陽十一脈灸經의 遠心性 경맥노선과 연관성이 있다. 이를 심경과 심포경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자.

### 1. 帛書와 經脈篇의 心經과 心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9. “心主之脈，出於中指之端，內屈，循中指內廉以上，留於掌中，伏行兩骨之間，外屈，出兩筋之間，骨肉之際，其氣滑利，上二寸，外屈，出行兩筋之間，上至肘內廉，入於小筋之下，留兩骨之會，上入於胸中，內絡於心脈.”

## 包經

靈樞 經脈篇의 수소음심경은 從胸走手하여 胸中에서부터 小指之端으로 흐르며, 수궤음심포경 또한 從胸走手하지만 胸中에서부터 中指之端으로 흐르니, 經脈篇에 언급된 심경과 심포경은 서로 다른 운행경로를 가지는 서로 다른 경맥이다. 그러므로 심경과 심포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병증을 서술해 놓고 있다.

그러나 陰陽十一脈灸經에는 심포경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으며, 심경에 해당하는 臂少陰脈은 오히려 從手走胸하여 臂兩骨上間에서 시작하여 흉부의 심장으로 흐른다고 하였다. 그동안 陰陽十一脈灸經에서 영추 경맥편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소음경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陰陽十一脈灸經의 설명 또한 원심성이 아닌 향심성 경맥유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2. 帛書와 靈樞 本輸篇, 邪客篇의 心經과 心包經

邪客篇에는 肺와 心包 二經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本輸篇에는 十一經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음경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궤음경을 언급하고 있다. 두 편에서 모두 수궤음경에 대하여 從手走胸하여 사지말단에서 시작하고 주관절이나 흉중으로 흐르는 向心性 經脈流走를 설명하고 있으나, 本輸篇의 내용은 邪客篇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本輸篇이 좀 더 후대에 기록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足臂十一脈灸經에는 심포경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으며, 심경에 해당하는 臂少陰脈은 筋下兼을 돌아 脇으로 달린다고 하였다.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의 臂少陰脈은 모두 從手走胸하는 향심성 경맥유주를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帛書 二經에는 모두 심포경에 해당하는 경맥이 없고 心經에 해당하는 臂少陰脈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모두 從手走胸하는 향심성 경맥유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靈樞 邪客篇과 本輸篇에는 심경에 해당하는 경맥이 없고 心包經에 대한 설명

만 있으며, 두 편 모두 從手走胸하는 향심성 경맥유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추 경맥편에는 從胸走手하여 胸中에서부터 小指之端으로 흐르는 수소음심경과 從胸走手하여 胸中에서부터 中指之端으로 흐르는 수궤음심포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素問』 「靈蘭秘典論」에서는 心을 君主之官으로 표현함으로써 心이 병드는 것은 모두 心包가 대신하는 것이며, 心이 병들면 대신 心包를 치료한다거나, 心이 병들면 곧 죽는다고 하였고, 『靈樞』 「邪客篇」에는 ‘少陰獨無臉’라 하기도 하였다. 즉 馬王堆醫書에는 심포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황제내경에 이르러서는 심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심을 군주로 여겨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심경의 본수이론은 없고 심포경의 본수이론만 존재하며, 같은 맥락에서 ‘少陰獨無臉’이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3. 心獨無臉의 의미

그렇다면 ‘獨無臉’은 ‘經脈이 없다’는 의미인가?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는 모두 從手走胸하는 향심성 경맥유주를 가지고 있는 臂少陰脈을 언급하고 있으며, 靈樞 經脈篇에도 從胸走手하여 胸中에서부터 小指之端으로 흐르는 수소음경이 있으므로 ‘經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獨無臉’은 ‘經穴이 없다’는 의미인가?

비록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이나 靈樞 經脈篇에 手少陰心經에 해당하는 경맥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경혈에 대한 명칭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심경의 경혈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황보밀의 침구잡을 경에 이르러야 볼 수 있다. 靈樞 本輸篇 뿐만 아니라 素問 氣府論에서도 경혈 명칭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鍼灸甲乙經에 이르러서는 黃帝內經보다 189개 혈자리가 늘어난 349개 경혈명칭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그렇다면 ‘獨無臉’은 ‘本輸가 없다’는 의미인가?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靈樞 本輸篇, 邪客篇에 모두 從手走胸하는 향심성 경맥유주를 언

12)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p.155.

급하고 있으며, 특히 靈樞 本輸篇에는 오수혈 명칭까지 밝히고 있다.

그럼 ‘心獨無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馬王堆帛書가 靈樞에 영향을 끼쳤다가나, 足臂十一脈灸經이 陰陽十一脈灸經으로 변화하고 陰陽十一脈灸經이 靈樞 經脈篇으로 변화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백서에는 심경을 언급하고 심포경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靈樞 本輸篇에 해당하는 항심성 유주 내용이지만, 靈樞 本輸篇에는 심경이 아니라 심포경의 본수 이론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邪客篇에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다. 황제내경의 心經은 靈樞 經脈篇에서 원심성 유주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帛書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사이 心은 君主之官으로 心包가 心을 대행한다는 사상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邪客篇에서 ‘少陰獨無脈’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出版部. 1985. p.20, 80, 82, 229.

## 感謝의 글

본 논문은 2008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參考文獻

1. 가노우 요시미즈. 중국의학과 철학. 서울. 驪江出版社. pp.180-181.
2. 김용진. 馬王堆醫書와 黃帝內經에 나타난 經絡學說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87. 9. p.85.
3. 윤종화, 김갑성. 馬王堆 漢墓出土 醫書中 足臂十一脈灸經 및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篇과의 比較 考察. 동국대학교 한의대연구소 논문집. 1992. 1. p.123.
4.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p.155.
5. 이정훈,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에 對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9. 16(2). p.178.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